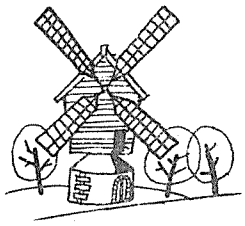
京仁에너지

지난 한해는 경제계 전체가 경기침체와 경제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變革期였으며, 80년초의 變動換率制 실시와 수차에 걸친 原油価引上과 이란·이라크전의 장기화로 정유업계 전체가 큰 고통을 겪은 한해였다.

京仁에너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무척이나 어려운 한해였지만, 原油供給先의 多辺化와 重質油의 在庫累積을 適期에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한 해를 넘기게 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작년도의 특기할 사항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추진하여 베네수엘라에서 값싼 원유도입에 성공하였으며, 정부의 公害방지대책의 일환인 도심권 공해방지를 위하여 低硫黃油를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 이를 韓国電力의 당인리발전소에 공급하게 되었다.

81년도에는 전반적 景気回復이 기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상황에 적응하는 운영계획을 강력히 시행해 나가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금년도 석유류제품 수요는 작년에 비하여 약 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京仁에너지도 이에 발맞추어 공장 가동률을 작년도 70%에서 금년도에는 83%인 5만BPCD로 상향 책정하고이에 필요한 원유를 차질없이 공급받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京仁에너지의 금년도 사업 중점은 油価自律化 추세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우선 企業体質의 改善과 経営의 合理化 및 製品質向上을 통한 대 고객서비스개선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변화하는 경제정세하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合理的 人力運用과 효과적인 工程管理 및 品質向上 運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값싼 제품을 공급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시책을 펴 나갈 것이며, 작년도에 이어 韓電에 低硫黃油의 供給과 原油導入先 多辺化 노력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회복과 고도성장에 대비키 위해 국가경제의 원동력인 에너지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헌신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 및 공해문제의 해결 등 다각적인 면에서 장기계획을 수립, 국가 基幹産業의 역군으로서 차질없는 一翼을 담당할 각오이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가 기간전략 산업의 중추로서의 사명감과 새시대 건설의 역군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저희 회사의 굳은 의지를 금년에도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해해 주고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줄 것을 희구한다.*